

# 답답했던 7월 FOMC: 9월에 가 보자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 류진이 2122-9210 jinlee@hi-ib.com



2023-07-27

## ■ 답답했던 7월 FOMC

7월 FOMC는 악재도 호재도 없었던 회의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의존해 추가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문구만이 기억되는 회의였다. 9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도 동결도 모두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애매한 수준의 경제지표가 미 연준 통화정책의 모호성을 질게해 준 것이다. 물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미 연준이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의 연착륙 기류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결정에 있어 포워드 가이드언스보다 회의 개최시마다 라이브 결정할 것을 강조한 것은 물가와 성장 그 어느 쪽도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나 동결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의 반증이다.

결국 8~9월 중 발표될 물가와 고용지표 추이가 9월 금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 ■ 그러나 금융시장은 동상동몽

애매한 미 연준의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시장은 다소 향후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소폭이지만 국채 금리와 달러화 하락은 7월 FOMC 회의 결과가 크게 매파적이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다소 혼재 양상을 보였지만 그래도 금리 동결에 다소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추세를 좀더 봐야겠지만 각종 금융시장은 추가 금리인상보다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동상동몽' 현상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사 역시 추세적인 물가 둔화세와 다소는 약화되고 있는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9월 미 연준의 선택은 금리 동결일 것으로 판단한다.

## ■ '중물가-중금리' 국면 본격 진입: 미국 경기의 연착륙 추세 속에 연말/연초 경기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기조 유지

오늘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발언 중에 하나는 2%대 물가 수준은 25년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보다 코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 연준도 상당기간 중물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을 언뜻 시사한 것이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떠나 금리인하 시점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당사가 강조한 '중물가-중금리'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이다. 이러한 '중물가-중금리' 현상이 미국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가지는 않겠지만 당사가 지난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 모멘텀이 연말/연초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물가-중금리' 국면에서 성장 수준이 다소 뒷받침된다면 주식시장이 반길 소위 골디락스일 것이고 0% 전후의 성장률 수준을 기록한다면 침체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는 국면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 사이클 종료와 관련하여 뚜렷한 시그널을 주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미국 경기 사이클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미 연준의 평가는 긍정적 부분이다. 다만, '중물가-중금리' 현상으로 인해 연말/연초 미 경기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림1. 금리인상 누적 효과가 연말/연초 미국 경기에 반영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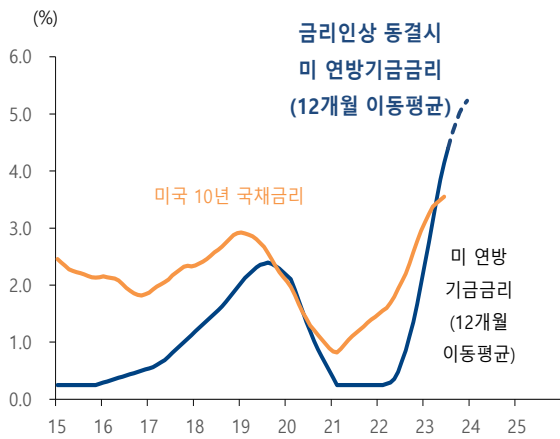


그림2. '중물가-중금리'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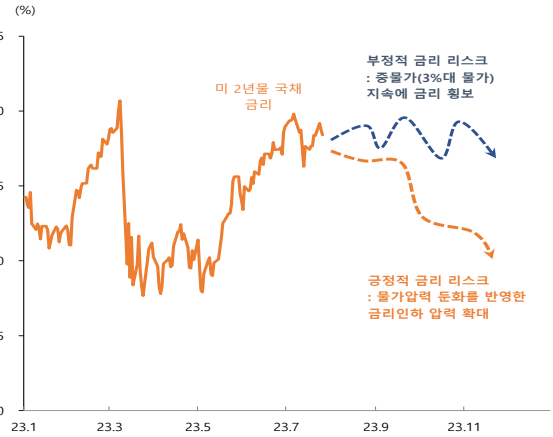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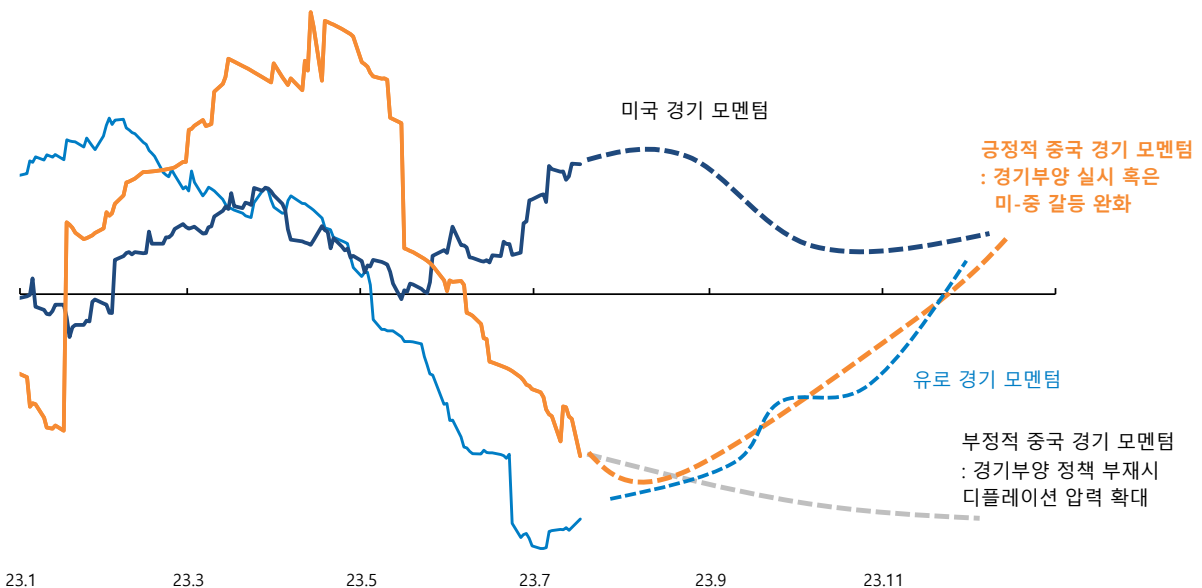


그림3. 미국 경기는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말경 경기 모멘텀 둔화가 예상됨. 중국 모멘텀이 회복될지가 글로벌 경기측면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